

광주·전남 국민연금대출자 절반 병원비에 썼다

1년 반동안 495명 '실버론' 이용 올 상반기 102명 의료비 용도 대출 전국 전·월세 용도 절반과 대조 노후자금 당겨쓰는 고령자 대책 필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긴급대출(실버론)을 받은 광주·전남 연금수급자는 199명으로, 절반은 병원비를 충당하는 데 대출금을 썼다. 의료비용 등으로 연금을 저당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광주·전남 국민연금 노후연금 수급자 이용자는 199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한 지난해 296명을 포함

해 1년 반 동안 495명의 지역민이 '실버론'을 이용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제도다. 전국 이용자의 99.5% 가량이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는다.

한 마디로 노후 연금을 당겨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셈이다.

올 상반기 광주·전남 199명이 대출받은 금액은 총 11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51.2%)을 차지하는 102명은 의료비 용도로 4억42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 이용자 45.3%(90명), 배우자 장제비 2.0%(4명), 재해복구비 1.5%(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금액으로 따지면 전·월세 보증금이 6억 7300만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의료비 목적 비중은 37.6%로 나타났다.

실버론 이용금액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은 2019년 25.4%, 2020년 29.2%, 올 상반기 37.6%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고령화가 심각한 광주·전남은 병원비를 내기 위해 실버론을 받는 수급자 비중이 더 높다.

올해 상반기 전국 실버론 이용자 4571명 가운데 56.0%인 2558명은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을 받았다. 의료비 명목 이용자 비중은 42.0%로, 전남 비중(51.2%) 보다는 다소 적었다.

정확히 국민연금 광주본부 과장은 "연금대출의 과반수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 데 활용하는 전국 추세와 달리 광주·전남은 의료비 명목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대적으로 고령자 비중이 높고, 전·월세 값 상승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완만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버론'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로 빌릴 수 있다.

최대 5년 동안 원금균등 분할(미거치 또는 거치 1~2년 선택) 방식으로 상환된다. 올해 4분기 실버론 이자율은 1.69%로, 전분기(1.63%)보다 0.06%포인트 증가했다. 연체 이자율도 3.26%에서 3.38%로, 0.12%포인트 올랐다. 연체 이자율은 대부분 이자율의 2배를 적용한다. 실버론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매 분기별로 변동 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 수급자는 광주 13만2019명·전남 27만3564명 등 40만5583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광주 46만 8271원·전남 42만1061원으로, 전국 평균(49만 5953원)보다 적었다.

지난해 5월 기준 광주·전남 수급자 수는 37만 8999명으로, 전년보다 6.6%(2만3544명)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4.0%(2만6584명) 늘어나며 증가율 2배를 넘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 '우티택시' 광주서 서비스 시작 택시법인 10개사 참여

우버와 티맵모빌리티 합작사 '우티'가 출시한 통합 앱이 1일부터 광주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31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는 가맹택시 '우티택시' 260대가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를 출범한다.

광주지역 참여 택시법인은 10개사로, 오는 3일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우티는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다. 티맵모빌리티의 택시 서비스 티맵택시는 지난 4월 서비스 종료 후 우티 앱에 편입됐다. 우티는 1일부터 이 두 앱을 통합해 하나의 우티 앱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우티는 전국적으로 가맹택시 연내 1만대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 이용자는 이 앱으로 한국에서는 우티 택시를, 해외에서는 우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대기업 플랫폼 '우티'가 광주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출범할 수 있는 건 콜(호출) 점유율 80%에 달하는 카카오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광주 동남지역은 전체 법인(76개사)의 과반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6월 말 기준 카카오T 블루 택시는 광주 664대로, 지난해 말(579대)에 비해 14.7%(85대) 증가했다. 전남은 지난해 104대에서 올해 149대로, 43.3%(45대) 늘었다.

카카오의 택시 호출 점유율은 80% 가량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지난해 출범한 리본택시와 빛고을, 윌드콜, T맵콜, 개인택시 자체 콜 서비스 등이 나눠 갖는다.

우티 택시가 내건 호출 수수료율은 2.2%로, 카카오T 블루 수수료 3.9%(개인택시 5%)의 절반 수준이다.

우티는 호출 1건당 2000원을 기사에게 적립해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출범 초기에 이어갈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내 손실 보상금은 얼마?

소상공인 보상 활착제 종료 매출 감소액에 인건비 등 반영 3일부터 시·군·구 창구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나올 간의 '홀썩제'를 마치고 지난 3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받고 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0일 신속보상 대상자에 포함돼 221만2000원의 보상금을 당일 지급 받았다.

A씨는 "신청 첫날에는 본인인증을 다섯 번 할 정도로 접속이 불안하고 지체됐지만 셋째 날에는 5분도 걸리지 않아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에 나온 보상금으로는 300만원에 달하는 월세도 못 내지만 '숨만 쉬고' 살았던 나 스스로가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정부가 내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기승을 부렸던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번에 정부는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지자체의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했다. 여기에는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등이 활용됐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전인 2019년 대

비 올해 기준 기간 일 평균 손실액(천원 단위)을 방역조치를 이행한 날로 꼽힌 뒤, 이 금액의 80%가 주어진다.

단 매출감소액에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반영한다.

A씨의 경우 올해 3분기(7~9월) 매출은 2034만원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7%(-2262만원) 감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405만원, 8월 1658만원, 9월 1233만원 등 석 달 동안 4297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7월(766만원), 8월(490만원), 9월(778만원)에 걸쳐 2034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2019년과 비교한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은 7월 21만6200원, 8월 37만67000원, 9월 15만 16000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매출액-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률'(9%)과 인건비(6%), 임차료 비중(통계청 조사 평균값)을 더해 매출 감소액에 곱한다.

산출된 금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보정률 80%를 반영하면 최종 산정액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A씨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한 기간은 7월 17일, 8월 31일, 9월 30일 등 78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나온 A씨의 3분기 피해액은 7월 39만3000원, 8월 130만9000원, 9월 51만원 등 3분기 총 221만2000원이 나온다.

오는 3일부터는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창구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한가위 이벤트' 푸집한 경품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 3번째)이 지난 29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펼친 '몸 따로 마음 같이 한가위 이벤트' 당첨자 306명 가운데 1등 고객(선불카드 100만원) 등에게 경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롯데 창립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병행

국내 최대 소비축전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1~15일) 기간을 맞아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지역 롯데아울렛 2곳이 이달 7일까지 창립 42주년 행사를 병행한다.

이 기간 동안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 세계 300여 종 와인을 최대 70~80% 할인 판매한다. 창립을 기념해 출시한 와인 2종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또 9층 행사장에서 골프와 아웃도어 의류를 최대 반값에 판매하며 다양한 등산 의류,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결과물인 현대자동차 '캐스파'를 경품으로 내건 사은행사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한다.

광주수완점과 월드킴점 등 롯데아울렛 2곳은 하반기 최대 할인전인 '메가세일'을 7일까지 연다.

해외명품을 한자리에 모은 '롯데탑스'는 최대 20% 할인율을 내걸었다. 대표적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각각 최대 30%, 20% 할인 판매한다. 여성류는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올 가을·겨울 골프 의류 신상품은 추가 10% 할인, 아동 의류도 10% 추가 할인 한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킴점은 모바일 앱 사은행사를 열며 '애플 에어팟 프로'와 '롤체구스토 커피머신', '베비에르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또복권 (제98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4	15	23	29	38	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78,711,625	10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4,308,485	73
3	5개 숫자일치					1,335,755	2,968
4	4개 숫자일치					50,000	140,004
5	3개 숫자일치					5,000	2,283,682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